

2015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11.26(목) 15:00~16:30

■ 주요 의견 내용

▲ 심층성, 신뢰성, 정확성 확보해야

- 10일 '라이브투데이' 수치 여사 직함 없는 대통령 될 것 기사에서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되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관련 내용에 추가적으로 미얀마 전반에 걸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가 상원과 하원의 의석의 25%를 할당받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미얀마 대통령 선출 과정을 함께 소개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성낙용 위원)
- 17일 금수저, 흙수저 수저계급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내용을 다소 비판적으로 보도했는데 상속 증여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상황이 좋아져 자산을 물려준다고 해석됨. 이것은 나라와 가정의 부의 축적이며 소득계층별 상속비율 분석없이 총량만으로 수저계급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이용우 위원)
- 25일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는 보도내용에서 서울시가 약 2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이런 지역에 건물을 매입해 상인들에게 저리로 임대를 뱉다는 내용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임.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하므로 심층적으로 다뤄야 함(이용우 위원)
- 17일 방영된 악마의 편집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되풀이 되는 악마의 편집 이야기기를 다시 한 번 전해 주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보다는 현상 보도에 치중했음.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출연자 1차 피해자와 궁극적 피해자인 시청자들의 불쾌함도 전달되어야 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음(이용진 위원)
- 8일 9시 40분경 저녁 프로축구 성적 소식 전달 과정에서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PO에 진출했다는 기자의 멘트가 똑같이 반복되어 보도 끝에 나감. 보도 과정에서 완성도가 낮은 뉴스 아이템은 뉴스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릴 수 있음(양승찬 위원)
- 건강관련 뉴스는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2일 오전 8시경 한국 전통 북소리가 급성 쇼크사 억제한다, 8일 12시경 수면 부족 신장 기능 떨어뜨려(하버드대) 등 건강 뉴스를 앞뒤 맥락 없이 출처와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음(최현철 위원)
- 16일 우리나라 땅값이 50년새 3,000배 늘어났다는 내용은 명목토지자산 가격은 물가가 오르면 함께 오르는 현상이 있음. 실제보다 과장돼 보일 수 있으므로 실

질가격으로 환산해서 보도한다면 좋았을 것(이용우 위원)

▲ 언론의 역할과 보도의 균형 고려해야

- 21일 '모닝Y'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기업의 세일행사관련 보도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대기업 위주의 홍보 보다는 소상공인, 전통시장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차원의 홍보가 돼야 함. 실제 백화점에서는 K-세일이라는 명목 하에 단 하루만 할인금액을 적용한 예도 있을 만큼 단순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언론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김연화 부위원장)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이력에 관한 유서 깊은 영상들이 충실하게 삽입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삶을 이해하기 쉬웠다는 인상을 받았음. 다만 대통령 임기 중의 업적 등에 관한 보도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회 척결, 5공비리 청산 등 역사 바로 세우거나 금융실명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업적들이 충실하게 편성된 반면, 임기 말에 가면서 발행했던 각종 측근 관련 비리사건이나 IMF사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음. 한국의 정서상 고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밝은 면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사실에 관해서 좀 더 충실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라는 의견임(최진녕 위원)
- 10월 31일 '뉴스20' 두산, 14년 만에 KS 정상... 통상 4번째 우승 기사에서 두산 우승 소식 등 다양한 분석 보도가 좋았지만 삼성 감독 등 선수들이 두산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축하해 주는 감동적인 모습들도 함께 언급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성낙용 위원)

▲ 부적합표현 및 자막 화면구성 개선필요

- 23일 '출발640'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진 구성 오늘 발표보도에서 제목을 듣고 시청자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에 누가 포함될 것인지 기대하게 되지만, 실제 보도내용에는 집필진의 대략적인 숫자와 구성방법에 대한 발표일 뿐 어떤 분야의 누가 집필진이 될 것인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음. 보도의 헤드라인과 내용의 일치성은 시청자의 상식적인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24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라고 보도했는데 가계부채는 항상 사상최대임, 소득이 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도 함께 증가함. 과장된 표현으로 시청자들이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줬으면 함(이용우 위원)
- 18일, 19일 같은 내용의 보도가 있었음 각각 '비싼 자동차 보험료 내년 15%인상'과 '고가 외제차 보험료 내년부터 15%인상' 이었는데 비싼 자동차 보험료 인

상은 비싼 보험료를 더 올린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이용우 위원)

- 25일 '뉴스현장13' 딸? 아들? 엄마 손가락 길이에 달렸다...태아 성 결정에 영향 내용에서 해당 뉴스가 방송될 때 서울시, 서울역 고가 12월 13일 0시부터 폐쇄라는 자막이 나와서 혼란을 일으킴. 속보라면 자막 앞에 '속보'라는 명시를 해야 할 것임, 또한 26일 '조현아-송무원 변호인들 미국 판사 앞에서 구두 공방' 뉴스에 자막으로 대법원이 통상임금 2심 파기환송 내용으로 나오는 등 화면과 자막 내용이 불일치 한 경우가 있었음(김연화 부위원장)
- 글씨체, 글자크기, 스크롤 속도 등이 안정되어 자막뉴스를 보기가 한결 용이해졌으며 자막뉴스의 특징을 살리려고 용어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은 좋았으나 '성희롱 비정규직 전환 배제 중단' 등의 자막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워 적절한 자막 내용 정리가 필요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연합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자막의 경우 지난 뉴스를 보내거나, 본 화면의 자막과 뉴스 내용이 상이하여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8일 12시경 이미 정종섭 장관 기자회견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자막에는 "총선 가능성"이라는 뉴스가 나옴. 15일 오전 8시경 프랑스 테러 관련 사망자와 위독자 수 보도에 본 자막과 뉴스 내용이 달랐음(최현철 위원)
- 13일 '뉴스12' 수능 이후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명사 메시지 코너의 경우 국회의장과 서울대 총장 외에 배우들에 집중된 인상을 줌. 마치 지상파 연예가 중계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내용보다는 유명한 얼굴 보여주기 식의 편집이 됨. 애초 기획했던 목적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10일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 기사에서 해당 학교를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천문우주학과 사무실' 간판 화면을 보여줘 시청자들이 특정학교를 생각 할 수 있도록 함. 공익적인 보도가 아니면 범죄와 관련 없는 학교 등을 시청자가 유추 할 수 없도록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함(김용주 위원)

▲ 후속보도 및 프로그램 기획 의견

- 최근 UN사무총장의 방북 관련 연합뉴스TV 단독보도는 UN이 방북준비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함으로써 연합뉴스TV의 보도가 사실인 점이 인정되어 연합뉴스TV의 외교/북한 보도에서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함. 다만 후속보도에서 연합뉴스TV의 활약이 다른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은 점은 좀 더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짐(최진녕 위원)
- 10일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인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인지 등 무혐의 이유를 보도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않고 당사자인 경찰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무혐의 이유를 추가로 보도해 주길 요망(김용주 위원)

- '오늘 생각'의 경우 조금 더 다양한 사회 이슈뿐만 아니라 일상의 서민 삶과 관련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다양한 현장에서 취재하여 전달하면 좋겠음. '생생 네트워크'는 지역 사회의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연합뉴스TV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지역 주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더 다양한 지역 이슈를 소개하면서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 관련 보도는 대한민국의 벤처 1호 기업인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고 비슷한 1세대 기업인중 재미있는 이야기가 누구보다 많으므로 이러한 소재를 별도로 다뤄보면 좋을 것(이용우 위원)

▲ 사건사고 보도시 주의사항

- 13일 오후 5시 '뉴스워치'에서 '가위 하나로 1분 만에 유리문 똑딱 절도 덜미'라는 보도 코너는 범죄 수법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CCTV 동영상 화면을 보여줌. 지나치게 상세한 범죄 보도는 모방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양승찬 위원)
- 13일 500원 동전으로 병원 PC 턴 10대들 적발 내용의 범죄사건보도는 새로운 범죄의 형태를 알림으로써 시청자에게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범죄 수법을 너무 자세히 보도하여 자칫 모방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도 방식을 개선 요망(김용주 위원)

▲ 긍정적 평가

-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는 한국언론학회 회원대상 언론학자들에게 한국이 방송, 포털 포함 미디어산업에 관해 설문을 조사한 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미디어어워드라고 하는 행사가 있음. 연합뉴스TV가 미디어어워드 8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임. 최근 닐슨 시청률 조사에서 연합뉴스TV가 경쟁사 대비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일반인에 대한 신뢰성 및 호감이 상승하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 연합뉴스TV 위상이 높아져 가는 것에는 언론으로써의 정도를 지키는 기본적인 자세와 내부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강대인 위원장)
- 22일 '뉴스특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기사에서 패널로 경희대 객원교수와 시사평론가가 참여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평가를 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은 것이 돋보였음(성낙용 위원)
-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오늘 생각'과 지역 사회의 뉴스를 전달하는 '생생 네트워크'는 연합뉴스TV 편성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도 좋을 바람직한 코너임(양승찬 위원)
- 23일 '북한은 오늘' 북, 남 우리수역 목표 해상사격시 응징 보도에서 출연자도

좋았지만 담당 기자의 냉철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설명이 더 신뢰를 주었고, 24일 '라이브 이슈' 슈퍼 엘리노발달 올겨울 날씨 전망은? 방송에 출연한 기상 전문기자의 전문성과 설득력 있는 보도가 매우 좋았음.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내용도 논리정연하게 시청자들이 전달해주었음. 전문기자 활용으로 뉴스의 신뢰성이 돋보임(이용진 위원)

- 15일 '트렌드 지금 여기' 착한 가격! 만원의 행복을 시청하면서 가슴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져서 너무 좋았음. 프로그램 초반에는 사람들이 경제난 속에서 단돈 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쇼핑이나 식당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중반부에 소개된 '만원 템플스테이'를 통해 뭔가를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비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특히 '만원 수술'을 보면서 생각뿐인 나눔을 실천하고 그 나눔을 통해 또 다른 나눔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어서 너무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좋은 프로그램이었음(이용진 위원)

- . (끝)